

## Pope의 倫理觀(Pope as a Moralist)\*

강 대 전

### I

Pope는 친구인 Gay가 죽었을 때 Swift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re is nothing of late which I think of more than mortality, and what you mention of collecting the best monuments we can, of our friends, their own images in their writings... I am preparing for my own; and have nothing so much at heart, as to shew the silly world that men of Wit, or even Poets, may be the most moral of mankind.<sup>1)</sup>

이처럼 Pope는 시가 시인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미지——moralist로서의 이미지를 의식하고 있었다. Horace에 있어서와 같이 Pope에 있어서도 사는 법은 시를 쓰는 법보다 중요한 일이었다.<sup>2)</sup> 이리하여 Pope는 인간과 인간이 사는 법, 정과 邪, 善과 惡을 예시한 많은 시를 썼으며 이러한 시 속에서 Pope의 moralist적인 단면을 찾아보는 것은 힘들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다소간의 교훈적인 요소는 Pope의 거의 모든 시에서 발견되며 그의 Homer 번역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되는 사실로서 Pope는 Robert Digby에게 보낸 1720년의 서신에서 “Homer의 神觀과 倫理觀에 관한” 논문을 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Pope가 편집한 Shakespeare 전집에서 교훈적인 구절 또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간결한 표현, 이른바 sententia에는 따옴표나 별표가 붙어있는데 이것은 Pope의 moralist적인 취향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 점에 관하여 John But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ope] likes sententiousness. He likes Macbeth to give expression to universal truths, to reflect on the worthlessness of life or on what we might hope of old age... In *Hamlet* the only shining passages are sententious speeches, Polonius's advice to Laertes, and Claudius's soliloquy before he prays; of the three passages commended in *Othello*, one is “who steals my purse steals trash.”<sup>4)</sup>

그러므로 Pope가 한탄한 “註釋과 번역에 매달린 10년 세월의 Pope의 [팔자] Pope's[fate],

\* 이 논문은 1983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The Correspondence of Alexander Pope*, ed. George Sherburn, 5 vols. (Oxford, 1956), III, 347; 이하 *Correspondence*로 약칭함.
- 2) John M. Aden, *Something Like Horace* (Kingsport, Tennessee, 1956), p. 114.
- 3) *The Works of Alexander Pope*, ed. the Rev. Whitwell Elwin and W. J. Courthope, 10 vols. (London, 1871-1889), IX, p. 71; 이하 E-C로 약칭함.
- 4) *Pope's Taste in Shakespeare* (The Shakespeare Association, 1936), pp. 9 ff; Geoffrey Tillotson, *The Moral Poetry of Pope* (The Literary and Philosophical Society of Newcastle Upon Tyne, 1946), p. 1에서 인용되고 있음.

p 420  
Se67h  
1983 C.4

ten years to comment and translate" (*The Dunciad* III. 332)도 그가 장차로 moralist적인 기호에 가장 잘 맞는 종류의 시——교훈시, 풍자시를 쓰기 위한 일종의 준비기간으로 볼수도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허송한 세월도 한탄해야 할 팔자도 아닌 듯 하다.

번역 이외의 본격적인 작품에 있어서도 대개는 교훈적인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다. Pope는 그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생을

...상상의 미로에서 오래 방황함이 없이  
진실로 내려와서 교훈시를 썼도다.

...not in Fancy's Maze he wander'd long,

But stoop'd to Truth, and moraliz'd his song. (*An Epistle to Dr. Arbuthnot*, 340 ff.)

이라는 couplet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서 "moraliz'd his song"이라는 말은 Pope가 *An Essay on Man*, *Moral Essays*, *Imitations of Horace*, *Epitaphs*에 속하는 시들, 말하자면 교훈적 요소가 지배적인 시들을 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들 가운데 감각적, 묘사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흔히 교훈적인 요소가 감각적인 요소와 혼합되어 있지만 여하튼 교훈적인 요소는 지배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감각적인 요소가 오히려 시종일관하여 지배하는 *Endymion*과는 정반대이다. Pat Rogers는 "Pope가 그의 시의 성격을 과연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은 미해결의 점"<sup>5)</sup>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Pope 연구가들은 "상상 : fancy"의 시로부터 "교훈 : moralizing"의 시로의 추이를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과정을 급격한 것 내지는 돌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흔히 "상상"의 시라고 생각되고 있는 시들도 철학적·교훈적인 시인 *An Essay on Man*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만 "상상"의 시라고 말할수 있을뿐 교훈적인 요소는 그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Pope의 소년시절 작품인 *Pastorals*의 *Summer*편의

어디가나 淸風이 숲속을 부채질하고

앉는 자리에 수목이 울창하게 물려서 그늘 이루네.

Where'er you walk, cool gales shall fan the glade;

Trees, where you sit, shall crowd into a shade. (73 ff.)

와 같은 시행들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상상"의 시라고 부를수 있겠지만 *Spring*편의 다음 시행들—— William Trumbull경을 향하여 말하는——

현명하여 고관대작이 아니요, 선량하여 세도가가 아닌

<그대>는 더 이상 貴顯이 되는 영광 누리지 않도다.

온 세상이 자랑할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온 세상을 다 잊고 살도다!

You, that too wise for pride, too good for pow'r,

Enjoy the glory to be great no more,

And carrying with you all the world can boast,

To all the world illustriously are lost!—(7 ff.)

5) *An Introduction to Pope* (London, 1975), p. 62.

은 *Spring*이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될 정도이며 여기서 50행을 더 읽어가면

명랑한 실비어가 경쾌하게 풀밭 따라 달려가니  
달려가며 제모습 보이기를 바라도다.  
뒤쫓는 사나이에겐 다정한 시선을 날려 보내니  
실비어의 발과 눈은 이다지도 어긋나라!  
The sprightly Sylvia trips along the green,  
She runs, but hopes she does not run unseen;  
While a kind glance at her pursuer flies,  
How much at variance are her feet and eyes! (57ff.)

이라는 귀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16세의 소년의 작품<sup>6)</sup>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Pope는 16세에 60세였다 : Pope was sexagenarian at sixteen”<sup>7)</sup>라는 Elizabeth Browning의 말이 수궁이 갈만큼 능구렁이 같은 생각을 담고 있다. 이들 *Spring*의 귀절들은 각각 늙은 신사와 성숙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또한 옳은 행동과 그릇된 행동이 다루어지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듯 한 둘째 구절은 Tillotson의 이른바 “하나의 소형의 윤리적 문제 : an ethical problem in miniature”<sup>8)</sup>를 제기하고 있다. Sylvia의 발이 하는 일이 옳고 그녀의 눈이 하는 일이 잘못된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옳은 일, 그릇된 일, 옳과 옳은 인간세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혼재하게 마련이라는 사실—Euripides가 말한

미덕과 악덕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같은 행위들 속에 서로 꼬여져 있도다.  
Virtue and vice ne'er separately exist  
But in the same acts with each other twist.<sup>9)</sup>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까? 이러한 관련에서 볼 때 Pope가 “그의 〈牧歌〉에서는 어리고 미숙한 탓으로 인간성으로 부터 유리되고 있다 : wander from humanity in his Eclogues with boyish inexperience”<sup>9)</sup>고 말한 Wordsworth의 평은 재고될 적하다.

*Pastorals*로부터 든 이러한 예로 보아 Pope의 초기시에 속하는 다른 시들—*An Essay on Criticism*, *The Rape of the Lock*, *The Temple of Fame*, *Eloisa to Abelard*, “Elegy on the Death of an Unfortunate Lady”—에 있어서의 윤리적 요소에 관해서는 不問可知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Pope의 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상상”의 시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은 착잡하기는 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미로; maze”의 시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Pope가 그의 후기시로부터 “진실로 내려온 :

6) *Spring*에 붙친 Pope의 自註.

7) *Aurora Leigh* (1857) p. 37; Geoffrey Tillotson, *Pope and Human Nature* (London, 1958), p. 250에서 인용되고 있음.

8) Tillotson, *Pope and Human Nature*, p. 250.

9) Plutarch, *Morals*. trans. several hands. corr. and rev. W. W. Goodwin, 5 vols. (Boston, 1870), II. 66.

9) “Essays Supplementary to the Preface [to the *Lyrical Ballads*],” para. 17.

stoop to truth"것이 아니라 후기시에서는 진실로 내려온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II

Pope의 시에는 인간——그 자신이 “인간의 합당한 궁리의 대상 : The proper Study of Mankind” (*An Essay on Man* II, 2)이라고 말한——을 그린 귀절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들 귀절들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옳은 생활, 선한 생활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이는 행복하다...

사색에 잠겨 고요한 숲 속을 거닐며

현명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는——

중용지도를 지키며 스스로를 벗삼고

자연을 따르며 스스로의 종말을 思考하고

혹은 인간보다 거룩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하늘에서 逍遙케 하고

同志적인 별들 사이를 화기애애하게 돌아다니게 하고

하늘을 살피며 그것을 자신의 本郷으로 생각하는 이는!

Happy the man....

[Who] wand'ring thoughtful in the silent wood,

Attends the duties of the wise and good;

T'observe a mean, be to himself a friend,

To follow nature, and regard his end;

Or looks on heav'n with more than mortal eyes,

Bids his free soul expatiate in the skies,

Amid her kindred stars familar roam,

Survey the region, and confess her home! (*Windsor-Forest*, 235 ff.)

여기서는 Pope가 산다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의 연속적인 선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인 동시에 어떻게 죽는가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Pope의 시에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일은 거의 없다. *The Rape of the Lock*는 현란한 런던의 사교계의 생활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Pope는 아름다운 Belinda의 머리칼——그녀의 잘린 머리칼 이외의——이 결국은 흙에 묻힐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저 아름다운 태양들이 지고——그것들은 반듯이 지게 마련——

모든 머리단이 흙속에 묻여지리

...those fair Suns shall set, as set they must,

And all those Tresses shall be laid in Dust; (V. 147ff.)

Pope는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 쓴 편지에서 “내가 사는 바와 같이 죽게 하라 : Sic mihi

contingat vivere, sicque mori"<sup>10)</sup>라는 어떤 로마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An Epistle to Dr. Arbuthnot*에서

오, 나 또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게 하라!  
Oh grant me thus to live, and thus to die! (404)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환기하는 사실은 Pope가 자신이 편집한 Shakespeare 전집에서 저 유명한 Macbeth의 독백의 "dusty death"를 "study death"로 수정하여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ools  
The way to study death. (V. 5. 22)

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sup>11)</sup> John Butt는 이것을 "a reading which emphasizes morality at the expense of poetry"<sup>12)</sup>라고 말했는데 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 인용된 *Windsor-Forest*로 부터의 一節은 선한 사람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다음 시행들은 그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근엄한 분들의 엄격한 인생으로 하여금  
장편의 정확하고 진실한 <희극>이 되게 하라.  
그것은 매장면에서 어떤 교훈을 주고  
되도록이면 즐거움과 함께 교훈을 주게 하라.  
내 인생은 적었고 즐거운 笑劇 같아서  
규칙에 맞춘 것 보다 더욱 재미있고  
유모아와 재치와 타고난 自在로움과 우아함이 있고  
너무 엄격하게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하라.  
연극의 비평가나 인생의 비평가에 비워 맞추기 힘들니  
비워 맞추어 연극 쓰는 이 거의 없고 그렇게 사는 이 더욱 없도다.

Let the strict life of graver mortals be  
A long, exact, and serious Comedy;  
In ev'ry scene some Moral let it teach,  
And, if it can, at once both please and preach.  
Let mine, an innocent gay farce appear,  
And more diverting still than regular,  
Have Humour, Wit, a native Ease and Grace,  
Tho' not too strictly bound to Time and Place:  
Critics in Wit, or Life, are hard to please,

Few write to those, and none can live to these. ("Epistle to Miss Blount, with the Works of  
Voiture," 21 ff.)

10) *Correspondence* I. 450.

11) *Pope's Taste in Shakespeare*, p. 8.

12) *Ibid.*

이 귀절은 24세의 Pope가 그의 연인인 Martha Blount<sup>13)</sup>에게 17세기 프랑스의 才士였던 Voiture의 유명한 서간집의 번역판을 보내면서 함께 붙친 시편이다. 18세기적인 適合性(decorum)의 기준에 따르면 신사는 “우아한 무관심 : graceful negligence”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세련된 즐거움 : elegant mirth”이 가능해야 했었는데<sup>14)</sup> Pope는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자질을 연극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이 귀절은 연애유희를 하고 있는 청년의 희롱이라기 보다는 어떤 철인의 농담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Pope는 “즐거움과 함께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놀려대고 있는 “근엄하신 분들”의 한 사람이 되고 있다. “너무 엄격하게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하라”라는 三單一性(three unities)에 관한 비판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따금씩 느끼는 갈망——俗塵을 떠나 悠悠自適하려는——을 드러낸다. 輟晦하여 閑居하려는 욕망은 다음 시행들 가운데도 있지만 그 어조는 한결 진지하다.

사랑으로 저의 과거의 작품들을 따뜻하게 대하시고  
저의 현재의 작품들을 무르익게 하시고 저의 마지막 작품들을 감싸주실  
세인트 존이여 !

시기에도 찬양에도 다 싫증이 난  
저의 인생의 안식의 때를 왜 망치려 드시나요?  
너무나 오래 세상에 드러나 있던 늙은 이 몸 숨어살게 해주시오.  
보시오, 겸손하신 시버도 극단에서 물러나시고  
우리의 장군님들 이제는 시골로 은퇴하셨으니  
서늘한 인생의 저녁녘에 갈채에도 물리시고  
하노오버 王家 위해 피흘리기도 싫어져서  
유서 깊은 전리품들을 정원 대문 위에 걸어놔소이다.

St. John, whose love indulg'd my labours past,  
Matures my present, and shall bound my last!  
Why will you break the Sabbath of my days?  
Now sick alike of Envy and of Praise.  
Publick, too long, ah let me hide my Age!  
See, Modest Cibber now has left the Stage:  
Our Gen'als now, retir'd to their Estates,  
Hang their old Trophies o'er the Garden gates,  
In Life's cool ev'ning satiate of Applause,  
Nor fond of bleeding, ev'n in BRUNSWICK's cause. (*Imitations of Horace* Epistle I. i. 1 ff.)

Pope는 이제 “[그의] 인생의 안식의 때 : the Sabbath of [his] days”(신비한 수자인 7을 또 7배한 49의 나이가 된 해) 즉 climacteric year=厄年를 맞이하여 소수의 절친한 친구 외에는 사회와의 접촉을 끊고 조용히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귀절도 그 앞의 귀절과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인용된 두귀절 가운데서 주목되는 사실은 풍자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Pope

13) Norman Ault는 이 시가 본래는 어떤 가공적인 여인에게 쓰여졌다가 후에 Martha Blount를 위하여 의도된 것처럼 꾸며졌다고 말하고 있다. *New Light on Pope* (London, 1949), pp. 49-56 참조.

14) Peter Dixon, *The World of Pope's Satires* (London, 1968), p. 44.

의 시에는 언제나 이 풍자적인 요소가 윤리적인 요소와 표리를 이루며 존재하는데 그것은 Pope가 선한 자와 선한 생활을 그리려고 할 때에는 이와 대립되는 악한 자와 악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생각치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그의 이론 바 “선한 자의 악한 자에 대한 강력한 혐오 : The strong Antipathy of Good to Bad” (“Epilogue to the Satires, Dialogue II” 198)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Pope의 시에 나타나는 미덕과 악덕, 선한 자와 악한 자에 관한 주제는 다음 시행에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줄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것,  
영혼의 고요한 행복,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쁨,  
이것이 <미덕>의 보답이라 : 더 좋은 보답을 책정하고 싶나?  
그렇다면 겸손에게는 六頭馬車를 주고  
<정의>에게는 정복자의 검을, <진실>에게는 道袍를 주고  
<공공정신>에게는 고귀한 직분, <왕관>을 주라.  
What nothing earthly gives, or can destroy,  
The soul's calm sunshine, and the heart-felt joy,  
Is Virtue's prize: A better would you fix?  
Then give humility a coach and six,  
Justice a Conq'ror's sword, or Truth a gown,  
Or Public Spirit its great cure, a Crown. (*An Essay on Man* IV. 167 ff.)

겸손한 자 즉 선한 자도 驕奢한 자의 부속품을 지니게 되면 결국 驕奢한 자와 마찬가지로 악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Pope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Pope는 옳은 것 잘못된 것, 미덕과 악덕, 지혜와 우열, 겸손과 교만등을 추상적, 일반적인 성질로서 논하는 것으로써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이들에게 신랄한 풍자를 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근엄하신 분들 : graver mortals” (“Epistle to Miss Blount...”, 21)에 대한 보다 일반적, 포괄적인 풍자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군님들 : our Gen'ral's” (*Imitations of Horace* Epistle I. i. 7)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인들에 대한 풍자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며——특정한 시기에 은퇴한 장군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결국은 “Cibber” (*Ibid.*, 6)에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풍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34년 3월에 극단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한 후로도 1745년까지 극단에 연연하여 계속 출연하였던 Colley Cibber가 “극단에서 물러났다 : has left the stage)고는 말할 수 없으며<sup>15)</sup> 자격도 없이 계관시인 행세를 했던 그가 “겸손 : modest”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인 주지의 사실이다.

Pope의 풍자는 Cibber와 같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도 가지가지이다. 다음은 무능한, 그러면서도 우쭐대는 세 사람의 목가시인들을 풍자한 “The Three Gentle Shepherds”의 전문이다.

훌륭한 필립스를 영원히 읊으리니

15) John Butt, ed., *Imitations of Horace*, Vol. IV of The Twickenham Edition of *The Poems of Alexander Pope*, 2nd ed. (London etc., 1953), p.354; 이하 이 edition은 Twick. Ed.으로 약칭됨.

훌륭한 필립스를 읊는 노래 골짜기에 울려 퍼지리.  
 또한 내 노래는 영원히 변화 있으리니  
 훌륭한 버젤과 훌륭한 케어리도 함께 읊기 때문이라.  
 혹은 (두 사람의 이름을 잘못 배열하였다면)  
 훌륭한 케어리와 버젤도 함께 읊기 때문이라.  
 오! 모조록 훌륭한 시인들은 다 같이 그대들을  
 마음이 착한 분들, 섬세한 분들로 불러 주사이다.  
 결코 풍자시는 그대들을 바보로, 악한으로 만들지 않고  
 神은 재간 있는 모든 시인들로부터 그대들을 구해 주사이다.

Of gentle Philips will I ever sing,  
 With gentle Philips shall the valleys ring.  
 My numbers too for ever will I vary,  
 With gentle Budgell and with gentle Carey.  
 Or if ranging of the names I judge ill,  
 With gentle Carey and with gentle Budgell:  
 Oh! may all gentle bards together place ye,  
 Men of good hearts, and men of delicacy.  
 May satire ne'er befool ye, or becnave ye,  
 And from all wits that have a knack, God save ye.

유치할 정도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시를 써서 Nambypamby라는 별명을 얻은 Ambrose(Amby) Phillips도 이 시편에서 Pope의 철퇴를 얻어맞고 있지만 Tillotson은 이 시편을 읽는 기분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세몰라 밀가루 푸딩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가 마침내 Pope가 그 접시를 마루마닥에 내던져 준 것 같은 : like being made to eat more than we want of a semolina pudding, till Pope dashes the dish down on the floor”<sup>16)</sup>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그 선행을 단순히 변덕스러움과 自己愛라는 원인의 결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여인을 풍자하고 있다.

나아시사의 성질은 어지간히 온순하여  
 비정하게 자식을 끓여서라도 미안수를 만들 여자.  
 애인의 소원을 풀어주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도다.  
 어찌다가는 한번 순순히 값을 치뤄 판매원을 놀라게 했고,  
 부활절에는 크리스찬답게 자선을 했고,  
 변덕으로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했도다.  
 그렇다면 마음 좋은 사람을 멀리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뇨,  
 마음 좋은 사람만이 그녀의 성질을 참아낼 수 있거늘?  
 Narcissa's nature, tolerably mild,  
 To make a wash, would hardly stew a child;  
 Has ev'n been prov'd to grant a Lover's pray'r,  
 And paid a Tradesman once to make him stare;

16) Tillotson, *The Moral Poetry of Pope*, p. 6.



Gave alms at Easter, in a Christian trim,  
 And made a Widow happy, for a whim.  
 Why then declare Good-nature is her scorn,  
 When 'tis by that alone she can be borne? (*Moral Essays II: Of the Character of Women*, 53 ff.)

또한 문학적인 감식력은 전혀 없으면서 문학의 후원자로서 우줄거리는 Bubb Doddington  
 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Pope는 다음과 같이 조롱하고 있다.

갈래진 파르나수스 산위에 앉아있는 아폴로神인양  
 잔뜩 부푼 뷰우포는 거드름 떨며 앉았도다, 아부하는 문인의 붓으로  
 부풀리어.

종일토록 부드러운 獻辭를 읽는데도 몰렸도다.  
 獻詩에서는 호라티우스와 뷰우포는 손에 손을 맞잡고 갔도다.  
 뷰우포의 서제(여기에는 죽은 시인들의 흉상과  
 머리 없는 진짜 핀다로스가 서 있었도다.)는  
 너절한 시인 나부라기들을 맞아드리고  
 이자들은 처음에는 뷰우포의 평을, 다음에는 한 자리를 요구했도다.  
 이자들은 뷰우포의 초상화와 저택을 실컷 추켜세우고  
 매일 아침하여 어떤 날에는 밤 얻어 먹었도다.  
 마침내 뷰우포는 철들어 검소하게 되어  
 어떤 시인에게는 포도주로, 어떤 시인에게는 칭찬으로 보답했도다.  
 어떤 시인에게는 시시한 연극의 試演을 주선하고  
 어떤 시인에게는(더욱 박정하게) 自作詩로 보답했도다.  
 오직 드라이든만이 뷰우포의 근처에 가지 않았고(이상한 일 아니로다)  
 오직 드라이든만이 뷰우포의 비평안을 피했도다.  
 그러나 귀하신 몸에게는 여분의 친절이 있어  
 굶어죽게 한 시인의 장례식을 위해서는 회사했도다.

Proud as Apollo on his forked hill,  
 Sat full-blown *Bufo*, puff'd by ev'ry quill;  
 Fed with soft Dedication all day long,  
*Horace* and he went hand in hand in song.  
 His Library (where busts of Poets dead  
 And a true *Pindar* stood without a head,)  
 Receiv'd of Wits an undistinguish'd race,  
 Who first his judgment ask'd, and then a place:  
 Much they extoll'd his pictures, much his seat,  
 And flatter'd ev'ry day, and some days eat;  
 Till grown more frugal in his riper days,  
 He paid some bards with port, and some with praise;  
 To some a dry rehearsal was assign'd,  
 And others (harder still) he paid in kind.  
*Dryden* alone (what wonder?) came not nigh,  
*Dryden* alone escap'd this judging eye:

But still the *Great* have kindness in reserve,  
He help'd to bury whom he help'd to starve. (*An Epistle to Dr. Arbuthnot*, 231 ff.)

실지로 Horace와 “손에 손을 맞잡고 간 : went hand in hand” 사람은 Maecenas—Virgil과 Horace의 천재성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이다. 만약 Maecenas의 행세를 한 Bufo(Bob Doddington)가 Maecenas가 가지고 있던 문학적 식견의 약간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Pope를 제외하고 영국 Augustan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인 Dryden을 “굶어죽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Pope가 공격하는 어리석은 자 가운데는 富에 대하여 옳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람은 富를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 지나치게 탐욕스럽거나 인색한 자, Pope의 소위 “빈자를 위하여 좋지 못한 청지기 : a backward steward for the Poor” (*Moral Essays*, III: *Of the Use of Riches*, 174)<sup>17)</sup>이다. 이러한 자에 대한 Pope의 풍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신랄하다.

[포우프] 그러면 알아보자, 돈이 무엇을 주는가를.  
食과 住와 衣라. [배티어스트] 또 무엇을 주느냐? [포우프] 食과 住와 衣라.  
이것으론 부족하뇨? 衣食住 이상을 원하느냐?  
아! 그 이상을 돈이 준다는 것을 터어너는 알지 못하노라.  
아! 그 이상을 불행한 위어튼은 밤새워 기도하여 필경  
발견치 못하노라(그의 모든 靈視로도 못보는 것이니).  
돈이 무엇을 줄수 있단 말이뇨? 죽어가는 [인색한] 호킨에게 상속자물,  
[방탕한] 차아터에게 정력을, [코와 귀를 잘린] 재피트에게 코와 귀라도 갖다줄 수 있단 말이뇨?  
돈이 보석이 되어 창백한 히피어의 얼굴에게 빛나라고 명할 수 있고  
[色狂인] 폴비어의 허리띠 장식되어 아래서 벌렁거리는 성적 흥분을 달래줄 수 있고  
아니면 늙은 나아스여! 그대의 향문에 수 놓은 기저귀를 갖다 부쳐  
그대의 추잡한 瘻癰을 고쳐줄수라도 있단 말이뇨?  
(하아팩스가 돈을 안 쓸 정도로 약게만 굴지 않는다면) 돈은 혹시  
하아팩스에게 한 사람의 친구로부터의 충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비참한 샤일록의 목숨을 건져줄(그것은 [악독한] 샤일록 부인의 본의는 아니나)  
어떤 법률학자를 찾아 줄 수도 있겠노라.  
그러나 수 많은 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이 죽나니  
죽어서 그들의 유산은 대학의 설립자금 혹은 고양이 사육비 되도다.  
그뿐이라, 하늘은 어떤 자에게 보다 행복한 운명을 허락하니  
그들의 사생아 혹은 그들이 미워하는 자식이 상속자 되도다.  
*Pope*. What Riches give us let us then enquire:  
Meat, Fire, and Clothes. *Bathurst*. What more? *Pope*.  
Meat, Clothes, and Fire.  
Is this too little? would you more than live?

17) “청지기”에 관한 비유담에 관해서는 Matt. XXV. 14-30 및 Luke XVI. 1-12 참조. 이점에 있어  
서 Pope의 태도는 Christian moralist의 그것이다—Raymond Southall, ed., *Pope: An Essay  
on Criticism; The Rape of the Lock; Moral Essays* (London, etc., 1973), p. 300.

Alas! 'tis more than Turner finds they give.  
 Alas! 'tis more than (all his Visions past)  
 Unhappy Wharton, waking, found at last!  
 What can they give? to dying Hopkins, Heirs;  
 To Chartres, Vigour; Japhet, Nose and Ears?  
 Can they, in gems bid pallid Hippias glow,  
 In Fulvia's buckle ease the throbs below;  
 Or heal, old Narses, thy obscener ail,  
 With all th' embroid'ry plaister'd at thy tail?  
 They might (were Harpax not too wise to spend)  
 Give Harpax' self the blessing of a friend;  
 Or find some Doctor that would save the life  
 Of wretched Shylock, spite of Shylock's Wife:  
 But thousands die, without or this or that,  
 Die, and endow a College, or a Cat.  
 To some indeed, Heav'n grants the happier fate,  
 T'enrich a Bastard, or a Son they hate. (*Moral Essays* III: *Of the Use of Riches*, 79 ff.)

Pope의 시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풍자는 당시의 독자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인 동시에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문화적, 사회적 母體 속에 깊숙히 잠겨있는 시가 흔히 제공하는 곤란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Pope의 시가 지니는 강력한 매력이고 힘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것은 John M. Aden이 말한 바와 같이 풍자의 一針이 주는 따끔한 맛——“한 온스의 고통은 한 파운드의 교훈에 값하기 : an ounce of pain is worth a pound of precept”<sup>18)</sup> 때문이다. 한편 앞에 나온 Narcissa의 경우 명백하듯이——Narcissa는 자기도취와 허영을 상징하는 Narcissus의 여성형이다——Pope가 조롱하는 개인——Walpole과 Warton에 의하면 Narcissa는 Duchess of Hamilton의 회화였다.<sup>19)</sup>——은 또한 Theophrastus의 *Characters*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하나의 성격적인 유형을 구성하며 Pope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윤리적 암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III

Pope가 교훈적, 풍자적인 시를 쓸 때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거나 칭찬하기 위하여 남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는 별문제이지만 남을 해치기 위하여 그렇게 할 때에 Pope 자신은 그러면 전혀 흠이 없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당연히 제기하게 된다. 변론가는 그 자신의 성격, 특히 도덕적 품성에 의해서도 그 자신의 논점을 증명한다는 이른바 ethos적인 관점<sup>20)</sup>에서 볼 때 Pope가 이러한 도전을 감당해 낼 수 있다면 그의 풍자나 교훈은 더 많은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찬양을 받는 종류의 풍자시인의 자질은 로마의 풍자시인 Persius를 찬양한 다음과 같은 Dryden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다.

18) Aden, p. 119.

19) F. W. Bateson, ed., *Epistles to Several Persons (Moral Essays)*, Vol. III, ii of Twick. Ed., 2nd ed. (London etc., 1961), p. 54.

20) Peter Dixon, *Rhetoric*, in *The Critical Idiom*, ed. John D. Jump (London, 1971), pp. 24-25.

The philosophy in which Persius was educated, and which he professes through his whole book [of satires], is the Stoic; the most noble, the most generous, most beneficial to human kind, amongst all the sects, who have given us the rules of ethics, thereby to form a severe virtue in the soul; to raise in us an undaunted courage against the assaults of fortune... And this [philosophy] he expressed, not only in all his satires, but in the manner of his life... What he has learnt, he teaches vehemently; and what he teaches, that he practises himself. There is a spirit of sincerity in all he says; you may easily discern that he is in earnest, and is persuaded of that truth which he inculcates.<sup>21)</sup>

이것은 어떠한 풍자시인이냐 설교가에게서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자질이지만 Pope에게서는 이것을 기대할 수 없다. Byron은 Pope를 “모든 시인들중 가장 <흠없는> 시인 : the most *faultless* of Poets” 라고 치켜올렸다가 그것도 그의 성에 차지 않아 다시 격한 말투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중 거의 [가장 흠없는 사람] : and almost of men”이라고 덧붙였고<sup>22)</sup> 이 말을 재확인하는 듯이 Ruskin은 “여러모로 Pope는 가장 훌륭한 사람 : a greater man in many respects never lived”<sup>23)</sup>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Pope에 대한 일반적인 찬사로써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가지 점——Pope가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시적인 기교의 완성을 위하여 일생동안 성실한 노력을 지속하였다는——에 있어서는 결코 Persius에 뒤지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다. 풍자시라는 가장 낮은 시의 장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Pope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인색했던 Joseph Warton이 “Pope는 그가 탁월했던 종류의 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월하였다”<sup>24)</sup>고 한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Pope가 기교면에서 가장 <흠없는> 시인이며 또한 유럽전체를 통하여 그의 시대에 생존하였던 가장 훌륭한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수증할 수 있다. Pope는 *The Dunciad*에서 질적으로 저하된 글을 쓴, 그리하여 조악한 문학을 생산한 수많은 문인들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풍자하였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정당성은 바로 이러한 그의 시인으로서의 탁월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미 인용된 글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풍자시인에 관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Dryden은 매우 예민하였지만 이제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these ill-writers, in all justice, ought...to be exposed ...and none is so fit to correct their faults, as he who is not only clear from any in his own writings, but is also so just, that he will never defame the good; and is armed with the power of verse, to punish and make examples of the bad.<sup>25)</sup>

21) *John Dryden: Selected Criticism*, ed. James Kinsley and George Parfitt (Glasgow etc., 1970), pp. 250-52.

22) *Alexander Pope*, ed. F. W. Bateson and N. A. Joukovsky, in *Penguin Critical Anthologies*, ed. Christopher Ricks (Harmondsworth, Middlesex, 1971), p. 203.

23) *Works*, ed. E. T. Cooke, xii (1904), 122n; Tillotson, *The Moral Poetry of Pope*, p. 10에서 인용되고 있음.

24) George Sherburn and Donald F. Bond, *The Restoration and the Eighteenth Century*, Vol. III of *A Literary History of England*, ed. Albert C. Baugh, 2nd ed. (London, 1967), p. 932.

25) James Kinsley et al., p. 213.

이것은 *The Dunciad*를 써야했던 Pope의 정당성과 풍자시인으로서의 자질을 가장 잘 설명하여 준다.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수한 문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 never defame the good”는 것을 Pope가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Pope는 근대적인 textual criticism의 창시자라고도 할수 있는 Richard Bentley를 깎아내렸으며 그 자신이 편집한 Shakespeare 전집을 학문적으로 비판한 Lewis Theobald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결과로 그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볼 수 없었다. 이 밖에도 Pope가 Defoe의 *Robinson Crusoe*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The Dunciad* 아닌 다른 근거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지만<sup>26)</sup> 적어도 *The Dunciad*에 있어서만은 Pope가 Defoe에 관한 평가를 그르치고 있다고 할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두개의 과오는 있었지만 Pope가 공격한 것은 Dryden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劣惡한 문인이나 학자였다. George Sherbur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Prior로부터 Thomson에 이르기까지 Pope 당시의 우수한 시인들은 그의 친구들이었다.”<sup>27)</sup> Johnson의 시 *London*이 1738년 익명으로 발표되었을 때 Pope는 당장 그 진가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 찬양하였다.<sup>28)</sup> Pope는 Addison의 인간을 공격했지만 그의 능력은 찬양했으며 사실 후세의 사람들이 찬양한 문인들만을 용하게 골라서 찬양하고 있다.<sup>29)</sup> 문인들을 풍자한 모든 시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Byron은 끝까지 Wordsworth를 비웃었으며 Coleridge를 조롱한 일도 한두번으로 그치지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Byron은 현재의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시인들을 치켜세우고 있다.

Pope는 粗惡한 문장을 풍자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로 생각한 시인이었다. 이 점을 Twickenham edition의 *The Dunciad* 편자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Pope is usually concerned with the offence as well as the offender. He lived in an age which still tended to regard everything that appeared in print as literature; and even when he is satirizing his scribblers he still pays them the compliment of treating their work as bad literature...Pope... took a firm stand against the upstarts whom he saw invading the enclosed territory of literature. In the *Dunciad* of 1729 it is partly the *type* that he is attacking: the pedantic scholar like Hearne or Theobald; the weekly journalist like Roome and Concanen; the party hack like Oldmixon; the popular writer like Mrs. Centlivre, Mrs. Haywood, Ned Ward...the shameless publisher like Edmund Curll...such writers and such writing seemed to Pope—as, indeed, to John Dennis—to threaten the standards of literature...Men like Swift and Pope, conservative in their outlook, were honestly alarmed for the future of polite letters, and in 1728 there was some reason for alarm...<sup>30)</sup>

그러나 Pope가 조악한 글을 쓰는 “범죄 : crime”<sup>31)</sup>를 벌하는 것은 좋으나 그 범죄에 대한 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가, 즉 Pope가 공격하는 “愚物들 : Dunces”은 “공연히 맹렬한

26) Joseph Spence, *Observations, Anecdotes, and Characters of Men*, ed. S. W. Singer (London, 1820), p. 258; James R. Sutherland ed., *The Dunciad*, Vol. V of Twick. Ed., revised 3rd ed. (London etc., 1963), p. 437에서 인용되고 있음.

27) George Sherburn, ed., *The Best of Pope*, rev. ed. (New York, 1940), p. 458.

28) Hazelton Spencer, ed., *British Literature from Beowulf to Sheridan* (Boston, 1951), pp. 851-52.

29) *The Dunciad* (A) II. 132n; Twick. Ed., p. 114.

30) xlvf.

31) *The Dunciad*의 1729판 “Advertisement”에서 사용된 말; Twick. Ed., V, p. 9.

풍자의 바퀴에 박살이 난 나비들 : butterflies broken on the wheel of needlessly vigorous satire”<sup>32)</sup>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Pope가 Dryden의 소위 “시의 힘 : the power of verse”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힘——풍자시의 힘이 낳는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여서도 안 된다. 17세기 말로부터 18세기초까지는 비평의 시대이며 또한 풍자의 시대였다. 따라서 풍자시를 좋아하던 그렇지 않은 간에 이 시대를 산 모든 문인에게 풍자시는 하나의 所興이었다. 이처럼 풍자시가 성행된 시대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풍자시는 상품과 같은 일면을 지니고 있었다. Pope의 시에 나타나는 풍자적 언급들을 일일이 개인감정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풍자의 시대에는 풍자시라는 하나의 장르가 datum이었을 뿐만 아니라 풍자의 재료도 대부분 시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새로운 풍자시가 나왔을 때마다 독자들이 그것을 읽는 기쁨은 그들이 예상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있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가령 Pope가 Dennis를 공격한 사실은 단순히 Pope의 시대에 이미 전형적인 조롱감이었던 사람에게 Pope의 시대가 이미 마련해주었던 방식으로 풍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Richard Bentley와 Defoe에 대한 풍자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수도 있을 것이다. Peter Dixon은 Bentley가 일상담화에서도 “thou”와 “thee”라는 말을 사용하고 유난히 테가 넓은 모자를 쓴 기인이었으며 Jonson의 *The Silent Woman*의 등장인물 Morose처럼 “공격받기 쉬운 : vulnerable to attack” 존재여서 “Pope는 Richard Bentley에 관하여 풍자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sup>33)</sup> 또한 James Sutherland는 Defoe가 풍자의 시대에 있어서 흔한 풍자의 재료였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bused authors of his generation, Defoe takes his place naturally in a satirical portrait gallery; it would have been surprising if Pope had left him out, or failed to mention the pillory.<sup>34)</sup>

독자의 기대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었다는 이 시대의 시인들의 방식을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시대의 독자들도 풍자시인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나 적대적 감정에 주목하였다기 보다는 풍자의 바늘이 얼마나 예리하고 강한 독소를 머금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풍자대상을 찌르고 있는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또한 풍자로 개인이 입게되는 피해도 너무 과장하여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풍자시가 Pope의 그것과 같이 시로서 훌륭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미 보았듯이 Pope는 “상상의 미로 : Fancy's Maze”에서 방황하는 일을 그만두고 “진실로 내려오기 : Stoop'd to Truth”를 택했는데 그것은 상상의 미로가 너무 정교하다든가 너무 섬세하여 Pope의 시적인 재능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Pope가 풍자시를 쓰기를 택한 것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적인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서였다. Pope의 풍자시에는 그의 모든 시적인 능력이 완전히 동원되어 있다. 가르치는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Pope의 시대의 시적인 이상이었는데 Pope는 바로 이러한 이상을 그의 풍자시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32) Robert Kilburn Root, *The Poetical Career of Alexander Pope* (Gloucester, Mass., 1962), p. 131.

33) Dixon, *The World of Pope's Satires*, p. 43.

34) Twick. Ed., V, p. 437.

Pope가 가꾼 Twickenham 저택의 정원 동굴은 그의 친구들이 기증한 가지각색의 돌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는데<sup>35)</sup> Pope의 시는 마치 그 동굴처럼 여러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행들로 장식되어 있다. Virgil, Milton, Marvell, Keats, Tennyson이 Horace, Dryden, Swift와 합동해서 만든 것이 Pope의 풍자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하게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Pope의 풍자시는 단순히 小人根性에서 나오는 狹量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침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편중독이 된 Thomas Shadwell을 꼬집은

그리고 새도웰 꼬떡이니 이마 위 양귀비 또한 꼬떡이네.

And Shadwell nods the Poppy on his brows. (*The Dunciad* III. 22)

라든가 얼굴이 창백하고 여자처럼 나약했던 Lord Harvey를 꼬집은——Lord Harvey는 Dr. Conyers Middleton이라는 목사로부터 *Life of Cicero*의 獻辭를 받았다——

목사님 험겔 쌓아올린 무거운 찬사를 받고

나르시수스는 소낙비에 쓰러진 하얀 백합 같아라.

Narcissus, prais'd with all a Parson's pow'r,

Look'd a white lily sunk beneath a show'r. (*The Dunciad* IV. 103 ff.)

와 같은 시행에서 Shadwell과 Lord Harvey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들은 아름다운 이미지들 속에 함몰하고 만다.

#### IV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인 관점에 서서——William Lisle Bowles가 그랬던 것 처럼<sup>36)</sup>——어떠한 인간도 동료 인간을 풍자할 권리는 없다고 무조건 단정한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Pope가 조악한 글과 열악한 “취미”의 단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갈 것이다. Pope에 있어서 조악한 문학과 열악한 “취미”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Pope가 그 어느 한쪽을 그 다른 한 쪽과 구별하여 적당히 보아넘긴다는 일은 결코 있을수 없었다. Socrates에 있어서 知와 德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Pope에 있어서도 예술과 인생은 일치하는 것이었다. 훌륭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르네상스적인 관념<sup>37)</sup>을 Pope는 이어받고 있었다. Pope는 知德을 겸비한 교양인 내지는 신사가 추구하는 특질로서의 honnêteté의 관념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才士 즉 시인이 되는 것은 또한 좋은 친구, 정직한 인간,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일과 다를 바 없었다. 이리하여 Pope는 조악한 문인은 좋은 친구가 될수 없다는 얼핏 보기에는 역설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모든 나쁜 문인은 또한 그만큼 나쁜 친구라.

...each Ill Author is as bad a Friend. (*An Essay on Criticism*, 519)

35) Dixon, *The World of Pope's Satires*, p. 181.

36) Mark Pattison, ed., *Pope: Satires and Epistles* (1942), p. 15; Tillotson, *The Moral Poetry of Pope*, p. 14에서 인용되고 있음.

37) Dixon, *The World of Pope's Satires*, p. 11.

그리고 Aaron Hill이나 Thomas Cooke와 같이 Pope가 단죄한 조악한 문인이 Pope와 잘 지내자고 청해올 때에는

바보가 완전히 성났을 때엔 완전히 무해로우나  
 아! 그자들이 잘못했다 할 때엔 열배 해롭도다.  
 A Fool quite angry is quite innocent;  
 Also! 'tis ten times worse when they repent. (*An Epistle to Dr. Arbuthnot*, 107f.)

와 같이 매몰찬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일찌기 1717년에 Pope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문맥에서 음미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If I have written well, let it be consider'd that 'tis what one man can do without good sense, a quality that not only renders one capable of being a good writer, but a good man. And if I have made any acquisition in the opinion of any one under the notion of the former, let it be continued to me under no other title than that of the latter.<sup>38)</sup>

이처럼 시와 인간이 일체라고 한다면 Pope라는 한 인간은 그의 시로 인해서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시인으로서의 성실성으로 인하여 Pope가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뚜렷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Pope는 다른 문인들을 공격하는 글이나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글을 때를 가리지 않고 조금하계 발표하지는 않았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가 있다”는 성경의 말(Ecc. III. 1-7)을 Pope는 그의 시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었다. Pope는 어떤 공격이건 변명이건 그것이 세월과 더불어 무르익을 때까지 언제나 진득이 기다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Pope를 “the wasp of Twickenham”으로서 무턱대고 지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문학적인 愚物들을 신랄하게 공격한 *The Dunciad*를 Pope가 집필하게 된 전후의 경위를 설명한 George Sherburn의 다음과 같은 말은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Many people think of [Pope] as leaping to a reply when attacked; but the truth is that in most cases he paused before a retort. Theobald, for example, attacked Pope in 1726; two years later the *Dunciad* appeared. The castigation of most of the Dunces in the *Dunciad* marked an exasperated end of years of forbearance on the side of Pope. After initial errors in attacking Dennis (1711), Philips (1713), and later Curll (1716), little came from Pope's pen in the way of personal attack for twelve years. Meanwhile between 1711 and 1727 over fifty attacks on Pope were printed, besides almost a dozen things by Pope that the poet did not wish printed—including indecent squibs, personal letters, and such a piece as the satirical portrait of Addison (1722). These attacks came from at least seventeen different authors. At least seven newspapers printed anonymous attacks in this period. So far as we know Pope had attacked something like half of these seventeen authors; but in most cases (for instance, Dennis and Gildon) the provocation he

38) Preface to *Works* (1717); *The Prose Works of Alexander Pope*, ed. Norman Ault (Oxford, 1936), p. 295에 수록되어 있음.



offered was slight compared with the return in satire that it yielded. He may have printed retorts never identified as his; but as matters stand, all the known facts make the case for forbearance during the years 1716-26 overwhelmingly in Pope's favor, and overwhelmingly against the Little Senate at Button's, Curll's authors, and the (probable) hirelings of such Whig ministers as Walpole.<sup>39)</sup>

반면에 자신의 풍자가 단순히 풍자일뿐만 아니라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Pope의 의지와 이를 위하여 Pope가 드린 공과 세심한 노력은 그의 풍자를 단순히 개인적인 적대감정의 직접적인 노출로 간주하는 입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만든다. 설사 그의 풍자의 제물이 된 사람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Pope는 훌륭한 시를 쓴다는 시인으로서의 최우선적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감정의 방해를 받은 일은 없었다. 그리고 악감정이 여러 해를 두고 지속될 수는 없으며 더구나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Johnson은 Pope의 시인으로서의 성실성을 “to make verses was his first labor and to mend them was his last”<sup>40)</sup>라는 말로 평한 바 있지만 우리는 Dryden이 인간 Persius에서 발견한 성실성을 시인 Pope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V

그러나 Pope는 때로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Mark Pattison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신의 깃을 펼치고 자신의 미덕을 넉넉히 말하기 : spread his plumes and hinting at his own virtues”<sup>41)</sup>를 좋아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An Epistle to Dr. Arbuthnot*에는 다음과 같은 시행들이 있다.

朝廷과 大事 위해 태어나지 않았으니  
나는 빚진 돈은 갚고 믿고 기도드리는 생활을 하며  
I was not born for courts or great affairs  
I pay my Debts. believe, and say my Pray'rs, (267-68)

...

<행운>의 숭배자도 <유행>의 광대도 아니고  
<利慾>에 미친자도 <야망>의 走狗도 아니고,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한 시인의 자량은 이러하니  
즐겁게 했다면 오직 몇몇한 방식으로 그랬으며...  
Not Fortune's Worshipper, nor Fashion's Fool,  
Not Lucre's Madman, nor Ambitions's Tool,  
Not proud, nor servile, be one Poet's praise  
That, if he pleas'd, he pleas'd, by manly ways... (334 ff.)

그러나 Pope가 처하고 있던 상황을 잘 살펴보면 Pope의 태도는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Pope의 문학적인 적대자들이 “먹칠한 : blacken'd”것은 바로 Pope의 “도덕성 : morals”의 문

39) *The Best of Pope*, pp. xxxviii.

40) Samuel Johnson, *Lives of Poets*, ed. G. B. Hill (1905; rpt. New York, 1967), III, 218.

41) Dixon, *The World of Pope's Satires*, p. 11.

제였으며<sup>42)</sup> 따라서 Pope의 자기방어는 그 자신이 원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도덕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방어의 필요가 없었던 초기작품들 속에서는 자신의 미덕을 들먹이지는 않았으며 혹시 자신의 미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는 자신의 과오를 함께 언급하는 겸양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다.<sup>43)</sup>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미덕을 주장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훌륭한 시를 써서 정말 값있는 명성을 얻으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월계수 영원히 푸른 고대의 제단은  
 모독의 손길이 닿지 않게 솟아 있어  
 불길과 그 보다 사나운 <시기>의 광란과  
 파괴의 전쟁과 만물을 휩쓰는 세월도 해치지 못하다.  
 보라, 모든 나라의 識者들이 바치는 향불을!  
 들어라, 모든 나라 말이 어우러져 울리는 찬송을!  
 모든 음성이 이 지극히 정당한 찬양에 합세하여  
 온 인류의 대합창을 충만케 하라.  
 아! 승리의 시인들이여!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고  
 우주의 찬미를 영원히 이어받을 이들이여! ...  
 아! 그대들의 거룩한 영감의 불의 자그만 불꽃하나가  
 그대들 후손들중 말석의 가장 미천한 이놈을 고취하고  
 (연약한 날개로 멀리에서 그대들의 비상을 뒤따르고  
 입을 때는 뜨겁게 감격하나 글쓸 때는 질려서 떠나이다)  
 자만하는 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을 가르쳐서  
 뛰어난 知覺에 경탄하고 제자신의 지각을 불신케 하소서!

Still green with bays each ancient Altar stands,  
 Above the reach of sacrilegious hands;  
 Secure from Flames, from Envy's fiercer rage,  
 Destructive War, and all-involving Age.  
 See, from each clime the learn'd their incense bring!  
 Hear, in all tongues consenting Pæans ring!  
 In praise so just let ev'ry voice be join'd,  
 And fill the gen'ral chorus of mankind.  
 Hail, Bards triumphant! born in happier days;  
 Immortal heirs of universal praise!...  
 Oh may some spark of your celestial fire,  
 The last, the meanest of your sons inspire,  
 (The on weak wings, from far, pursues your flights;  
 Glows while he reads, but trembles as he writes)  
 To teach vain Wits a science little known,  
 T'admire superior sense, and doubt their own! (*An Essay on Criticism*, 181 ff.)

42) *An Epistle to Dr. Arbuthnot*, 352 참조.

43) *An Essay on Criticism*의 끝행 참조.

시인이 명성을 회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며 Pope는 이러한 회구를 표현하였을뿐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소위 기본적 미덕들(cardinal virtues)이나 十戒銘과 관련된 미덕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내가 서서 열심히 보고 듣고 있을 동안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 듯 여겨졌도다.  
무엇이 그대의 조급한 야망을 이렇게 높이 쳐들었느냐?

어리석은 젊은이여, 그대는 찬양의 지원자요?

“사실이랴”, 나는 대답했도다, “소망없이 오지는 않았도다.

젊은 시인보다 명성을 좋아할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아! 그 우연한 축복을 자랑할 자 거의 없으니

그토록 얻기는 힘든, 그토록 잃기는 쉬운 것이라.

헛되도다, 다른 사람의 숨결 속에서 부지하는 제이의 생명은,  
시인들이 죽은후에 물려받는 領地는!

이것 위해 편한 생활과 건강과 목숨을 버려야 하니

(領地保有기간은 확실치 않되 바칠 구실은 엄청나도다!)

귀하신 몸이 주시는 이득 없는 지주는 지속되니

시기받고 불행하고 아침받고 가난함이라.

모든 불운한 시인들은 적임을 공언하고

모든 성공한 시인들은 고작해서 시기하는 친구이라.

나는 명성을 멀리하지 않되 그 총애를 청하지도 않도다.

명성은 온다하되 청하여 오는 것 아니로다.

그러나 <愚劣>에 아부하고 <악덕>을 찬양하는

그런 비싼 값을 치러서 얻는 것이라면——

아! 시인이 무법의 <지배>에 아침하고

<행운>이 인도하는 곳을 항상 따라야 한다면——

아니면 다른 이의 명성의 쓰러진 폐허 밖엔

내 치솟는 이름의 토대가 없다면——

하늘이여! 죄많은 월계관 비웃는 법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가슴에서 비열한 명예욕을 몰아내 주옵소서.

나에게 흠없이 살다가 이름없이 죽게 해 주소서,

아, 정직한 명성을, 아니면 명성을 주지 마옵소서.”

While thus I stood, intent to see and hear,  
One came, methought, and whisper'd in my Ear;  
What cou'd thus high thy rash Ambition raise?  
Art thou, fond Youth, a Candidate for Praise?  
'Tis true, said I, not void of Hopes I came,  
For who so fond as youthful Bards of Fame?  
But few, alas! the casual Blessing boast,  
So hard to gain, so easy to be lost:  
How vain that second Life in others' Breath,  
Th' Estate which Wits inherit after Death!

Ease, Health, and Life, for this they must resign,  
 (Unsure the Tenure, but how vast the Fine!)  
 The Great Man's Curse without the Gains endure,  
 Be envy'd, wretched, and be flatter'd, poor;  
 All luckless Wits their Enemies profest,  
 And all successful, jealous Friends at best.  
 Nor Fame I slight, nor for her Favours call;  
 She comes unlook'd for, if she comes at all;  
 But if the Purchase costs so dear a Price,  
 As soothing Folly, or exalting Vice:  
 Oh! if the Muse must flatter lawless Sway,  
 And follow still where Fortune leads the way;  
 Or if no Basis bear my rising Name,  
 But the fall'n Ruins of Another's Fame:  
 Then teach me, Heaven! to scorn the guilty Bays;  
 Drive from my Breast that wretched Lust of Praise;  
 Unblemish'd let me live, or die unknown,  
 Oh grant an honest Fame, or grant me none! (*The Temple of Fame*, 497 ff.)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Pope의 도덕성을 먹칠한 사람들은 가령 Curll의 경우처럼 명사의 치부를 들추어내서 돈벌이를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지만 Pope는 이렇게 먹칠 당한 자신의 도덕성의 문제를 소재로 훌륭한 시를 썼다는 사실이다. 한편 우리는 Pope가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상의 미로”를 떠나 “진실”쪽으로 옮겨갔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이러한 回心 내지는 轉向에 대한 별다른 誘因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을 구태어 찾는다면 진실을 사랑하고 추구하려는 Pope의 선량한 性向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720년대와 173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Pope의 *The Rape of the Lock*의 모방작품들의 수효<sup>44)</sup>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러한 奔放한 作風: that voluntary Vein”<sup>45)</sup>이 독자들의 취향과 투합하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Pope는 것처럼 인기 있던 그의 작품을 바꾸어 *The Dunciad*, *An Essay on Man*, *Moral Essays*, *Imitations of Horace*와 같은 작품들을 썼는데 이것은 다름아니라 그가 시인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명석하고 완벽하게 윤리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Pope는 로마의 Augustus 대제 시대의 시인들——특히 Virgil의 경우 그랬지만——이 만년을 철학적·과학적 탐구로 보내기를 갈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Virgil의 젊은 시절의 생활을 의식적으로 본받으려고 하였던 Pope에게는 선배시인들의 이러한 지향이 그의 생활에 영향을 끼쳤음직도 한 일이다.<sup>46)</sup> 교훈적인 시들 속에 나타나는 Pope의 자세는 정온한 행복의 경지에 도달한 이지적

44) R. P. Bond, *English Burlesque Poetry 1700-1750* (Cambridge, Mass., 1933), p. 68 ff.

45) *Imitations of Horace* Ep. I. vii. 49-50: “And all that voluntary Vein,/As when Belinda rais'd my Strain.”

46) Tillotson, *The Moral Poetry of Pope*, p. 23, n. 3 참조.

인 철인의 그것, 그러나 또한 모든 事理를 알고 있기에 일말의 우수가 감도는 철인의 그것이다. 그리고 그 철인의 정온한 행복은 다음과 같이 가장 정온한 윤리적 감정을 토대로 하고 또한 “윤리적 감정의 가장 숭고한 표현 : the most lofty expression of moral temper”<sup>47)</sup>을 가능케 한다.

남이 괴로울 때 기뻐하지 않고

남이 복 받을 때 실망하지 않는다.

Never elated, while one man's oppressed;

Never dejected, while another's blessed. (*An Essay on Man* IV. 323-24)

Pope의 moralist적인 자세는 비단 그의 시작품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서간——Pope의 서간은 문학의 한 장르로서 생각할 수 있다——에서도 나타난다. 서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볼 때 그것은 실지로 윤리문제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시인으로서 또한 서간문인으로서 Pope는 일생동안 moralist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Pope의 시와 산문에 실지로 접하기도 전에 일반적인 통념의 지배를 받아 Pope를 다 갈시하려는 일부 독자들의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moralist Pope가 자신과 자신의 시대가 신봉한 윤리체계를 諄諄하게 풀어나갈 때 우리는 시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의 설득력을 실감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가 “윤리문제를 익살스럽게 설하는 : put morality in good humour”<sup>48)</sup>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일종의 친진스러움과 사랑스러움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 VI

Pope의 시들을 응졸하고 깃곳은 병신의 뿌리 깊은 앙심의 발로로 치부하고 그것들을 혹평하는 태도는 과거의 비평적 풍토의 유산이기는 하나 아직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문학작품 그 자체보다는 문인을 둘러싼 잡담을 더 좋아하고 비본질적인 논의 ——가령 Maynard Mack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의 기원에 대한 흥미를 우리의 비평적인 흥미에 우선시키는 습관 : habit of putting a genetic interest in the poem above our critical interest”<sup>49)</sup>——에 탐닉하는 경향이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또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가 “[그] 진실성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충격을 줄 : shock them with [its] truth”<sup>50)</sup>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시인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직접 들먹이며 우리를 공격한다면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풍자시인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의 도덕성을 뒷받침하여줄 어떤 윤리적 신임장이라기 보다 그의 작품 그 자체라는 지적인 신임장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시인의 작품 그 자체에서 제시된 윤리체계가 과연 옳은 것이며 그가 “덥쳐서 거머쥔 : stoop'd to”<sup>51)</sup> 것이 과연 “진실 : Truth”인가를 문제삼는 수 밖에

47) Ruskin의 말 ; F. W. Bateson and N. A. Joukovsky, p. 246.

48) 1730년 6월(?) Swift에 대한 서간에서 Pope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다 ; E-C, VII. p. 199 참조.

49) Twick. Ed., III, i, p. lxxiii.

50) Pope 자신이 Preface to *Works*(1717)에서 사용한 말 ; Norman Ault, p. 290 참조.

51) F. W. Bateson은 “stoop'd to Truth”가 나타내는 이미지를 “grappling” with truth로 해석하고 있다 ; F. W. Bateson et al., p. 29 참조.

는 별 도리가 없다.

19세기의 영국인 역사가인 Goldwin Smith는 *Maud*에 이르는 Tennyson의 전작품을 살피고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To rely on external sensations instead of internal efforts for a moral cure, is natural to that character which, dramatically or otherwise, is presented throughout Mr. Tennyson's poems—sometimes directly as in *Maud* and *Locksley Hall*, everywhere as the medium through which the world is viewed. It is the character of a man of high intellect and exquisite sensibility, keenly alive to all impressions, but wanting in the power of action and active sympathies, dependent on the world without him for happiness and cynical because it is not afforded.<sup>52)</sup>

Goldwin Smith가 Tennyson의 작품들 속에서 발견한 윤리적 결함을 Byron은 또한 로마 시인 Lucretius의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러므로 행복이 만인 위해 의도된 것일진대,  
신이 외적 사물들 속에 만족이 있게 할 이 만무하다.  
If then to all Men Happiness was meant,  
God in Externals could not place Content. (*An Essay on Man* IV. 65 f.)

라고 말한 Pope의 윤리관은 Byron의 최고의 찬사에 값할 만큼 혼란한 것이다.

The depreciation of Pope is partly founded upon a false idea of the dignity of his order of poetry, to which he has partly contributed by the ingenious boast,

“That not in fancy's maze he wandered long.  
But stooped to Truth, and moralized his song.”

He should have written “rose to truth.” In my mind, the highest of all poetry is ethical poetry, as the highest of all earthly objects must be moral truth. Religion does not make a part of my subject; it is something beyond human powers, and has failed in all human hands except Milton's and Dante's, and even Dante's powers are involved in his delineation of human passions, though in supernatural circumstances. What made Socrates the greatest of men? His moral truth—his ethics. What prove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ardly less than his miracles? His moral precepts. And if ethics have made a philosopher the first of men, and have not been disdained as an adjunct to his Gospel by the Deity himself, are we to be told that ethical poetry, or didactic poetry, or by whatever name you term it, whose object is to make men better and wiser is not the *very first order* of poetry...? It requires more mind, more wisdom, more power, than all the “forests” that were ever “walked for their description,” and all the epics that ever were founded upon fields of battle... If Lucretius had not been spoilt by the Epicurean system, we should have had a far superior poem to any now in Existence. As mere poetry, it is the first of Latin poems. What then has ruined it? His ethics. Pope has not this defect; his moral is as pure as his poetry is glorious.<sup>53)</sup>

52) Tillotson, *The Moral Poetry of Pope*, p. 24, n. 3에서 인용되고 있음.

53) Letter to ... [John Murray], Esq. on the Rev. W. L. Bowles's *Strictures on the Life and*

그러나 Pope의 윤리관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별반 독창적인 구석이 없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Pope 자신이 표방한 문학관——“흔히 생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잘 표현되지는 않은 것 : what oft was thought, but ne'er so well expressed”<sup>54)</sup>를 지향하는 그의 문학관과 걸맞게 당시에 일반화된 관념들——George Sherburn에 의하면 “그 당시의 통속적인 떠돌아다니는 관념들 : the popular, floating ideas of the day”<sup>55)</sup>을 엮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Pope의 윤리관은 그의 모든작품들과 서간에서 살필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위해서 *An Essay on Man*을 능가하는 작품은 없다. 그것은 이 작품이 Pope의 神觀, 人間觀, 世界觀——그것들은 어차피 Pope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던 사상들이지만——을 망라한 윤리체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An Essay on Man*에 의하면 우리는 외람되게 神을 是非하여서는 안된다(II.1: “presume not God to scan”). 그러나 神이 인간을 存在의 大連鎖의 중간, 즉 지협과 같은 중간위치(II.3: “isthmus of a middle state”)에 두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중간적 위치의 한쪽에는 천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짐승들이 있다. 靈肉을 함께 지니고 있는 중간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이 지협은 그 양쪽에 是非할 수 없는, 不可知・不可測한 것들을 암시하는 광막한 두 대륙 사이에 끼어있는 협소한 지대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생의 짧음을 상기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독자를 숙연케 만드는 효과를 가진 이미지이기도 하다. 인간의 합당한 窮理는 그 자신을 알고(II.2: “The proper study of Mankind is Man.”) 인간에게 허용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그 이상을 넘보지 않는 일이다.

교만, 이성의 교만 속에 우리의 잘못 있나니  
모든 자들은 제 위치를 버리고 하늘로 치달도다.  
교만은 항상 복된 거처를 겨냥하나니  
인간은 천사 되고저하고...

In Pride, in reas'ning Pride, our error lies;  
All quit their sphere, and rush into the skies.  
Pride still is aiming at the blest abodes,  
Men would be Angels...(I. 123 ff.)

이처럼 인간이 천사를 천착하려는, 혹은 천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하지만 또한 짐승의 위치를 회구하여서도 안된다.

이 인간이란 무엇을 원하느뇨? 때로는 위로 치솟아  
천사보다 작은 자가 천사보다 크게 되려하고  
때로는 밑을 내려다보고 역시 슬픈 듯이 보이나니  
황소의 힘과 곰의 털가죽이 없어서이라.

What would this Man? Now upward will he soar,  
And little less than Angel, would be more;

Writings of Pope 1821; F. W. Bateson et al., p. 204에 수록됨.

54) *An Essay on Criticism*, 298.

55) Sherburn, *The Best of Pope*, p. 409.

Now looking downwards, just as griev'd appears  
To want the strength of bulls, the fur of bears.(I. 173 ff.)

인간은 인간에게 허락된 위치를 지켜 인간에게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차원으로 떨어지고 만다.

여전히 그자는 제계집에게 안짱다리로 걸어가고  
눈에 떠는 모든 참새들을 부러워하도다.  
Still to his wench he crawls on knocking knees,  
And envies ev'ry sparrow that he sees.(*Moral Essays* I. 263 f.)

인간이 그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이상의 것도 인간 이하의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인간이 “건설적 체념 : constructive renunciation”<sup>56)</sup>을 실천할 때 인생에서 최선, 최대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 : our being's end and aim” (IV. 1)은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지협”에서의 그 삶을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미덕의 대가 : virtue's prize”(IV. 169)이며 미덕은 주로 慈愛(benevolence)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다. 행복한 사람, 인간 본연의 상태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良識——

오직 하늘의 선물인 良識, 學藝는 아니로되,  
완전히 七藝에 값하는 良識,  
Good Sense, which only is the gift of Heav'n,  
And tho' no Science, fairly worth the sev'n.(*Moral Essays* IV. 43 f.)

을 가지고 그것을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앞에서 인용한 *Windsor-Forest*의 귀절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중용지도를 지키는 : T'observe a mean”<sup>57)</sup>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용지도는 개인을 위해서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리하여 Pope는

...아무도 飽食할수 없고 아무도 餓死할 수 없는  
어런 適正한 중용을 온인류가 지킬 수 있기를  
...all mankind might that just mean observe,  
In which none e'er could surfeit, none could starve.(*Satires of Dr. John Donne* II. 119 f.)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Pope는 *An Essay on Man*의 작자로서의 자신의 의도를 저 유명한 *Paradise Lost*의 표현<sup>58)</sup>의 일부를 교묘하게 바꾸어 놓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도리를 옹호한다 : vindicate the ways of God to Man” (I. 16)는 말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 존재를 신의 섭리의 일

56) Maynard Mack가 사용한 말이다 ; Twick. Ed., III, i, lxx 참조.

57) 본 논집 p.4 참조.

58) I. 26.



부로 보고 신의 섭리를 정당화하는 이론인 theodicy(神義論)는 이 작품의 논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사리 풀수 없는 이세상의 불가사의와 신비증의 하나이다. 우주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의미를 지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그 의미를 인간의 지혜로서는 완전히 풀 수 없다. 우주 전체를 위하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그 일부가 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좋으라는 법은 없다. 보편적 선이 부분적 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한 악은 인간이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악의 존재를 창조주인 神의 과오로 귀착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좁은 견해로서 분명히 악한 것으로 알려진 어떤 일이라도 인간을 포용하고 있는 우주라는 광범하고 총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분적 악이 보편적 선 : partial Ill is universal Good” (IV. 114)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풀수 없는 일종의 背理이지만 인간은 이 背理를 오히려 믿고 이 우주의 창조주인 신을 시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리하여

만사는 최선이라, 비록 우리는——  
不可測한 이가 경륜하시는 일이  
至高의 지혜를 가져오고  
종말에는 최선의 것이 될을——흔히 의심할지라도.  
All is best, though we oft doubt  
What the unsearchable dispose  
Of Highest Wisdom brings about  
And ever best found in the close.<sup>59)</sup>

라고 말할수 있었던 Milton의 신념에 못하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Pope는

모든 자연은 그대 모르는 예술,  
모든 우연은 그대 못보는 섭리,  
모든 불화는 이해되지 못한 조화,  
모든 부분적 악은 보편적선  
그리고 교만과 그르치는 이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진실은 명백하니, “존재하는 것은 다 <옳음>이라”  
All Nature is but Art, unknown to thee;  
All Chance, Direction, which thou canst not see;  
All Discord, Harmony, not understood;  
All partial Evil, universal Good:  
And, spite of Pride, in erring Reason's spite,  
One truth is clear, “Whatever is, is RIGHT.”(II. 289 ff.)

라고 우렁차게 왜치고 있는 것이다.

59) *Samson Agonistes*, 1745 ff.

## VII

Pope의 윤리관은 대강 이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무게 있는 증언으로 밝혀지고 있다. Kant는 그의 강의에서 Pope의 시행들을 늘 인용했으며 Edinburgh 대학의 유명한 윤리학 교수인 Dugald Stewart는 1792-93년에 행한 강의에서 *An Essay on Man*을

the noblest specimen of philosophical poetry which our language affords; and which, with the exception of a very few passages, contains a valuable summary of all that human reason has been able hitherto to advance in justification of the moral government of God.<sup>60)</sup>

라고 극구찬양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는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문인들과 비평가들, 가령 Johnson, Byron, Newman, Ruskin, Leslie Stephen 등도 Pope의 윤리적 입장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sup>61)</sup>

그러나 Pope에게서 기독교적 윤리 체계를 찾는다면 그것은 緣木求魚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Pope가 기독교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Newman이 보기에는 “그 자신이 탐탁스러운 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하나의 가톨릭교인 : a Catholic, though personally an unsatisfactory one”<sup>62)</sup>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시적인 세계——현실적 생활과는 구별되는——에서 취한 그의 자세는 기독교적 모랄리스트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랄리스트의 그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제시되는 윤리체계는 가령 Newman이나 Pascal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기독교적 윤리체계가 아니라 가령 Homer나 Virgil에게도 용인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윤리체계이다. “Whig와 Tory, Locke와 Montaigne, Aristippus와 St. Paul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공존하기를 너무나 좋아했던,”<sup>63)</sup> cosmopolitan Pope에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역사적 기독교의 색채는 local color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Newman이 時空적으로 보다 광범한 교회를 찾아서 영국국교를 떠났다면 Pope의 윤리체계는 가톨릭교회 보다 광범한 것, 즉 “what oft was thought”인 “Nature”를 찾아서 가톨릭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Newman의 소위 “탐탁스러운” 기독교인들은 Pope의 광범한 윤리체계가 기독교의 교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Newman의 설교, 아니면 Pascal의 *Pensée*와 같은 것이며 그 밖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비위를 맞출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Pope의 윤리체계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또한 어느 시대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보편적 윤리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완성하는 것이다.<sup>64)</sup> 예수의 가르침도 분명히 보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황금률(Do as you would be done by)을 포섭하고 강화하고 있다.<sup>65)</sup> 이러한 사실은 Pope 자신이 그의 Pater Noster

60) Tillotson, *The Moral Poetry of Pope*, p. 27에서 인용되고 있음.

61) *Ibid.*

62) *Ibid.*

63) Maynard Mack가 한 말이다 ; Twick. Ed., III, i, p. xxiv 참조.

64) Matt. V. 17 참조.

65) Matt. VII. 12 참조.

라고 할수 있을 “The Universal Prayer”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긍휼함,  
그 긍휼함을 저에게도 보여 주옵소서.  
That Mercy I to others show,  
That Mercy show to me. (39f.)

라고 말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독교는 보편적인 도덕율을 실행케 만드는 보다 강력한 힘과 유인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죽음 후에 있을 상과 벌——을 믿게 함으로서 이 세상에서 옳게 살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선행과 그에 대한 대가를 연결시키는 것은 실리주의적인 천박한 사상이라고도 볼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미덕만이 지상에서의 행복 : Virtue alone is Happiness below” (*An Essay on Man* IV. 310)이라고 말한 Pope의 윤리관은 훨씬 고상한 것이다. Pope가 “지상의 행복이 神의 도리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하다 : terrestrial happiness is adequate to justify the ways of God”<sup>66)</sup>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덕은 그 자체 밖에는 다른 어떠한 유인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자체가 유인이며 대가라는 사상을 Pope는 이 한줄의 시행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Pope “미덕만이 지상에서의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미덕만이 지상에서의 행복”이라고 말함으로서 미덕과 행복의 일체성——미덕은 그 자체의 대가라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미덕이란 다름 아닌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benevolence)이며 결국 이 시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을 역설하는 셈이된다. 그러므로 “gives”라는 말 대신에 “is”를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Pope의 *tour de force*로만 볼수는 없는 것이다.<sup>67)</sup>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contentment)과 같은 것이며 仰天俯地하여 거리낌 없는 유덕한 자의 마음이 느끼는 평화와 기쁨——

What nothing earthly gives, or can destroy  
The soul's calm sunshine, and the heart-felt joy. (*An Essay on Man* IV. 167 f.)<sup>68)</sup>

인 것은 물론이다.

## VIII

미덕 즉 행복이라는 Pope의 윤리관은 인간과 세계에 관한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안이하고 낙관적인 사상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는 흔히 *An Essay on Man* Epistle IV의 몇개의 시행들을 그 Epistle의 전체적인 문맥으로부터 유리시켜 해석할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Epistle 전체를 면밀하게 살펴볼 때 이러한 오해는 곧 무산되고 만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미덕은 benevolence를, 그리

66) Twick. Ed., III, i, p. xxx.

67) Anthony Trott and Martin Axford, ed., *Alexander Pope: An Essay on Man, Epistle to Dr. Arbuthnot*, p. 107 참조.

68) 본 논집 p. 7에서 이미 인용된 바 있음.

고 행복은 내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흔히 행복으로 생각하는 외적, 관능적 만족과 미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인간세계에 있어서는 미덕이란 언제나 단편적, 간헐적으로 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덕의 댓가——외적인 행복으로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의——도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수도 없는 운명에 좌우되는 불규칙,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댓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윤리적 분별을 안가지고서는 그것을 감지하기가 힘들다. 다음에 열거하는 귀절들은 Pope가 어떤 현실주의자에 뒤지지 않는 윤리적 현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웅변으로 말하여주고 있다.

현자가 요구하면 에트너화산은  
천둥치는 일을 잊고 그 불길을 거두겠느냐?  
아, 흠없는 베들이여! 그대 가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바람이나 파도에 새로운 운동이 가해지겠느냐?  
높은 산꼭대기에서 바위가 흔들거릴 때  
그대가 지나가면 중력의 작용이 정지되겠느냐?

Shall burning Aetna, if a sage requires,  
Forget to thunder, and recall her fires?  
On air or sea new motions be imprest,  
Oh blameless Bethel! to relieve thy breast?  
When the loose mountain trembles from on high,  
Shall gravitation cease, if you go by?(IV. 123 ff.)

“그러나 때로는 <악덕>이 먹고 살때 <미덕>이 굶어죽노라”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요? 미덕의 보답은 빵이요?  
빵이라면 <악덕>도 그 값을 하니, 그것은 노력의 값이라.  
악한도 땅을 갈 때엔 빵을 얻기에 합당하고  
악한도 바다의 위험을 무릅쓸 때엔 빵을 얻기에 합당하노라,  
<愚劣>이 전쟁을 해서 왕에게 충성하고 潛水해서 돈 버는 곳에선,  
선인이 허약하여 無爲로 세월을 보낼수 있는 법이며  
또한 선인의 요구는 풍족이 아니라 自足이라.

“But sometimes Virtue starves, while Vice is fed.”  
What then? Is the reward of Virtue bread?  
That, Vice may merit; 'tis the price of toil;  
The knave deserves it, when he tills the soil,  
The knave deserves it when he tempts the main,  
Where Folly fights for kings, or dives for gain.  
The good man may be weak, be indolent,  
Nor is his claim to plenty, but content.(IV. 149 ff.)

<미덕>에게 환희를 가져오지도 않고  
<미덕>을 해치게 될 그 대가들——  
이들 대가로 인해 21세의 성자의 미덕이  
60세에 무너진 일 그 몇번이던고!  
Rewards, that either would to Virtue bring

No joy, or be destructive of the thing:  
 How oft by these at sixty are undone  
 The virtues of a saint at twenty-one!(IV. 181 ff.)

그러나 Pope는 敬天愛人의 미덕과 선인을 몹시 좋아하며 이들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곧 도취경 혹은 정신적 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로 빠지고 만다. 이리하여 Pope는 그 자신이 *An Essay on Criticism*에서 가르친 저 유명한 교훈을<sup>69)</sup> 잊고 그의 *furor poeticus*에만 의탁하여 미덕과 선인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찬양한다. 이 때문에 그가 윤리적 현실에 대한 파악이 약하고 안이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비평가들의 오해의 소지를 그 자신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음 시행들은 그 한 예이다.

그런고로 “〈미덕〉만이 지상의 행복이라”는  
 이 진실을 알라(인간은 이것을 앎으로 죽하도다).  
 여기서만 인간의 행복은 항상 변치 않고  
 악으로 타락함 없이 선을 맛보고  
 여기서만 〈가치〉가 항상 보답을 받고  
 보답받음으로서 복되고 배품으로서 복되도다.  
 〈미덕〉이 그 목적을 이루면 이를테 없는 기쁨이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도 고통을 수반치 않고  
 항상 복받되 물리는 일 없고  
 괴로움 당할수록 기리는 바 되도다.  
 인정없는 〈愚劣〉이 지나는  
 가장 방종한 즐거움도  
 〈미덕〉의 눈물보다 즐거움 못주도다.  
 모든 것에서 또한 모든 곳에서 유익을 얻어내고  
 영원히 행하되 피곤치 않고  
 남이 억눌려 있을 때 기고만장하지 않고  
 남이 복받을 때 낙망치 않도다.  
 부족함이 없이 욕망이 남아 있을 수 없는 곳에서선  
 오직 더 많은 〈미덕〉을 구함은 그것을 얻음과 같도다.  
 보라! 하늘은 만민에게 오직 하나의 복을 줄 수 있었으니  
 오직 느끼는 자는 맛볼 수 있고 오직 생각하는 자는 알 수 있도다.  
 그러나 재산이 있어도 가난하고 학문이 있어도 눈이 먼  
 악인은 이 복을 결하되 선인은 배우지 않아도 찾으리라——  
 宗派에 노예가 되지 않고 사사로운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으며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창조주인 신을 仰慕하는 선인은——  
 거대한 [神]의 경륜을 이어주고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결합하는 [存在의]〈連鎖〉를 추적하고  
 어떠한 존재이든 그 복된 위치는 반드시  
 그 위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존재들과 접해 있음을 알고  
 이 漸進의인 〈전체〉의 결합속에서

69) 84-87.

인간 영혼의 최초・최종의 목적을 배우고  
 <神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안에서  
 <믿음>, <율법>, <도덕>이 모두 시작되고 모두 끝남을 아는 선인은——  
 이러한 선인을 위해서만 <소망>은 목표로부터 목표로 흘러가고  
 항상 폭을 넓히고, 그의 영혼 위에서 넓히고  
 마침내 <믿음>으로 까지 끝없이 연장되어  
 온 마음에 충만한 행복을 쏟아내도다.  
 이러한 선인은 자연이 <인간>에게만  
 기지의 행복에의 <소망>, 미지의 행복에의 <믿음>을 심어놓은 뜻을 알고  
 (자연은 짐승들에게 그 본능을 공연히 주지 않고)  
 그 추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하도다.  
 자연의 선물은 현명하니 자연은 이 선물로서 결합하도다——  
 인간의 가장 큰 <미덕>과 가장 큰 <행복>을——  
 복 받고자 하는 인간 자신의 밝은 희망과  
 남을 도와주려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Know then this truth (enough for Man to know)

"Virtue alone is Happiness below."

The only point where human bliss stands still,  
 And tastes the good without the fall to ill;  
 Where only Merit constant pay receives,  
 Is blest in what it takes, and what it gives;  
 The joy unequal'd, if its end it gain,  
 And if it lose, attended with no pain:  
 Without satiety, tho' e'er so blest,  
 And but more relish'd as the more distress'd:  
 The broadest mirth unfeeling Folly wears,  
 Less pleasing far than Virtue's very tears.  
 Good, from each object, from each place acquir'd,  
 For ever exercis'd, yet never tir'd;  
 Never elated, while one man's oppress'd;  
 Never dejected, while another's bless'd;  
 And where no wants, no wishes can remain,  
 Since but to wish more Virtue, is to gain.

See! the sole bliss Heav'n could on all bestow;  
 Which who but feels can taste, but thinks can know:  
 Yet poor with fortune, and, and with learning blind,  
 The bad must miss; the good, untaught, will find;  
 Slave to no sect, who takes no private road,  
 But looks thro' nature, up to nature's God;  
 Pursues that Chain which links th' immense design,  
 Joins heav'n and earth, and mortal and divine;  
 Sees, that no being any bliss can know,

But touches some above, and some below;  
Learns, from this union of the rising Whole,  
The first, last purpose of the human soul;  
And knows where Faith, Law, Morals, all began,  
All end, in Love of God, and Love of Man.

For him alone, Hope leads from goal to goal,  
And opens still, and opens on his soul,  
'Till lengthen'd on to Faith, and unconfin'd,  
It pours the bliss that fills up all the mind.  
He sees, why nature plants in Man alone  
Hope of known bliss, and Faith in bliss unknown:  
(Nature, whose dictates to no other kind  
Are giv'n in vain, but what they seek they find)  
Wise is her present; she connects in this  
His greatest Virtue with his greatest Bliss,  
At once his own bright prospect to be blest,  
And strongest motive to assist the rest. (*An Essay on Man* IV. 309 ff.)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미덕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선인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선인이나 미덕은 윤리적 현실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꿈——윤리적 이상——이며 Pope는 이것을 하나의 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상을 시적인 결정으로 삼고 있는 이 시의 다른 곳에서 Pope는

모든〈인간〉은 분명히 선하기도 악하기도 하려니  
극도로 악한자나 선한자 거의 없고 만인은 다소간에 선하고 악하다.  
악당도 바보도 때로는 옳을 일을 하고 현명하고  
가장 선한 자들도 때로는 자신들이 멸시하는 자 되도다.  
Virtuous and vicious ev'ry Man must be,  
Few in th' extreme, but all in the degree;  
The rogue and fool by fits is fair and wise,  
And ev'n the best, by fits, what they despise. (II. 231 ff.)

라고 이미 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간이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놓고 있는 것이다. 미덕이 지니는 아이러니는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행복이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과 희생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Pope는 다음 시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 절감한 사람이었다.

선을 행하며 그대 고통으로 인하여 행복하라.  
Be Virtuous, and be happy for your pains. (*Imitations of Horace*, Ep. I. vi. 62)

요컨대 Pope의 윤리관은 Montaigne나 Johnson의 윤리관과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Montaigne는 “I find that the best Virtue I have has in it some tincture of Vice”<sup>70)</sup>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세계에 있어서는 선인의 선도 악인의 악도 결국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준다. Johnson은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미덕을 “romantic” virtue로서 구별하고 있다. 선한 Man of Ross를 찬양하고 있는 Pope의 *Moral Essays III: To Allen Lord Bathurst*를 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Into this poem some incidents are historically thrown, and some known characters are introduced, with others of which it is difficult to say how far they are real or fictitious; but the praise of Kyrl, “the Man of Ross,” deserves particular examination, who, after a long and pompous enumeration of his publick works and private charities, is said to have diffused all those blessings from “five hundred a year”. Wonders are willingly told and willingly heard. The truth is that Kyrl was a man of known integrity and active benevolence, by whose solicitation the wealthy were persuaded to pay contributions to his charitable schemes; this influence he obtained by an example of liberality exerted to the utmost extent of his power, and was thus enabled to give more than he had. This account Mr. Victor received from the minister of the place, and I have preserved it, that the praise of a good man, being made more credible, may be more solid. Narrations of romantick and impracticable virtue will be read with wonder, but that which is unattainable is recommended in vain: that good may be endeavoured it must be shewn to be possible.<sup>71)</sup>

Pope도 Johnson과 같이 “선한 : virtuous”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그것을 一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정도에는 여러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 염두에 둔다면 *An Essay on Man*의 최종 couplet에서

...〈미덕〉만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행복〉되도다.

...Virtue only makes our Bliss below.

라는 말은 건전한 윤리관의 가장 簡勁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70) *Essays*, tr. Charles Cotton, 3 vols. (1693), II. 556; Twick. Ed., III, i, p. 83에서 인용되고 있음.

71) *Lives of Poets*, III, 172 f.